

축 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은 7월의 뜨거운 열기속에 완도~제주간 해상교통
해결을 위한 한일 블루나래호 취항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취항식의 기쁨을 같이 하기 위해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찾아주신 한일고속 최석정 회장님과 최지환 대표이사님
신희복 상무이사님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
이철, 신의준 도의원님, 완도군의회 허궁희 부의장님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김양훈, 박인철, 이범성, 최정욱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우리 완도는 제주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해상교통과 항만물류 거점지역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일 블루나래호 취항은 지난 1월에 준공한 여객터미널과 함께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빠르고 쾌적한 여행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양관광 수요를 대처하고 완도군 500만 관광시대를 여는 큰 역할로 희망찬 도시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한일 블루나래호 취항을 위해 힘써 주신 한일고속 최석정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